

■ 주요 뉴스: 트럼프 행정부, 트럭 관세 부과 대상 확대 정부 섰다운 6일차, 교착상태 지속

- 프랑스 르코르뉴 총리 사임. 주요 산평사, 국가산용등급 하방위험 경고
- 일본, 다카이치 자민당 신임 총재 선출 이후 초장기 금리 급등세 재개
- 금 가격,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로 \$4,000 근접

■ 국제금융시장: AI 관련 위험선호와 재정 우려 관련 위험회피 성향이 병존

미국 주가 상승[+0.4%], 달러화 강세[+0.4%],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 AMD의 對오픈AI 대규모 공급계약 소식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유로 Stoxx600은 프랑스(CAC40 -1.4%)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속 혼조(-0.04%)
- 환율: 달러화지수는 유로존·일본 재정 우려로 98대 재진입
유로화는 0.3% 약세, 엔화는 1.9% 절하되며 2개월여 만에 환율 150엔 상회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정부 섰다운 지속에 따른 국채수요 감소로 상승
독일은 프랑스(+6bp)·영국(+5bp) 등 인근 국가들의 영향으로 동반 상승(+2bp)

※ 뉴욕 1M NDF 증가 1408.4원(10.3일 증가 1,405.26원 대비 0.22% 상승). 한국 CDS 보합

		10.6일	10.3일	전일대비			10.6일	10.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40.3	6,715.8	+0.36%	국채 금리 10y	미국	4.15%	4.12%	+3bp
	유럽	570.24	570.45	-0.04%		독일	2.72%	2.70%	+2bp
	중국	휴장	휴장	-		영국	4.74%	4.69%	+5bp
	일본	47,945	45,770	+4.75%	CDS 5y	한국	24bp	24bp	0bp
	한국	휴장	휴장	-		중국	38bp	38bp	+0bp
환율	달러지수	98.11	97.72	+0.39%	위험 지표	EMBI+	287	287	-0bp
	유로화	1.1711	1.1742	-0.26%		VIX	16.37	16.65	-1.68%
	엔화	150.35	147.47	-1.92%		WTI유	61.69	60.88	+1.33%
	위안화	휴장	휴장	-	원자재	구리	503.8	510.9	-1.39%
	원화	휴장	휴장	-		금	3,961.0	3,886.5	+1.9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트럼프 행정부, 트럭 관세 부과 대상 확대. 연방정부 섯다운, 협상 교착상태 지속

-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를 통해 11.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형·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무역 관련 사안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양국에서 회담을 개최할 계획임을 공개
- 연방정부 섯다운이 6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비 보조금 연장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발언.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백악관 레빗 대변인, 연방정부 섯다운이 지속될 경우 예산관리국(OMB)은 각 부처와 협력해 연방정부 직원 해고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경고.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7일에는 캐나다 카니 총리, 9일에는 핀란드 스투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각각 무역과 북극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프랑스, 총리 사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및 재정건전성 우려 고조

- 르코르뇌 총리는 전일 발표한 새 내각 구성이 대다수 정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이후,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재임(9.9일~) 27일 만에 사임을 결정 * 국부장관에 르메르 전 재무장관을 지목하는 등 사실상 기존 내각이 유지
- Fitch는 재정건전화 조치 미진 등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세 지속 시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 확대 가능성 경고. S&P는 분열된 의회를 설득해 EU의 재정적자 기준(GDP 대비 3%)을 충족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

■ 일본, 다카이치 자민당 신임 총재 선출 이후 초장기 금리 급등세 재개

-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10.3일 3.17%에서 6일 3.31%로 급등. Goldman Sachs는 시장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함에 따라 장기금리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이며 그 영향이 미국·독일·영국에도 일부 파급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은행(BOJ), 10월 지역경제보고서(분기보)를 통해 일본 9개 지역 중 8개 지역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유지. 단, 미국 관세의 기업이익 영향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익 급감 시 임금 인상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 금 가격,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로 \$4,000 근접

- 미국 정부 폐쇄(10.1일) 이후 금 가격의 상승세가 가속화된 가운데 6일 온스당 장중 최고가 \$3,970 기록. UBS는 펀더멘털과 가격 모멘텀 양 측면에서 금의 추가 강세 여지가 존재한다고 평가하면서 연말 \$4,2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연준 주요 인사, 정책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 강조

-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9월 FOMC의 정책금리 인하는 노동시장 위험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였으나, 물가 상승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연준은 물가와 고용의 상충 관계 속에서 인플레이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유럽중앙은행(ECB) 주요 인사들, 통화정책 현행 유지 시사

- 라가르드 총재, 인플레이션은 2% 목표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으며 임금 상승세는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 미국 관세, 유로화 강세, 수출 부진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내년에는 이러한 역풍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
- 퀴도스 부총재,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수준은 적절하다고 평가.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상방 위험 확대 시에는 동결, 하방 위험 확대 시에는 금리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발언. 에스κρι바 정책위원은 지난 1년여 동안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방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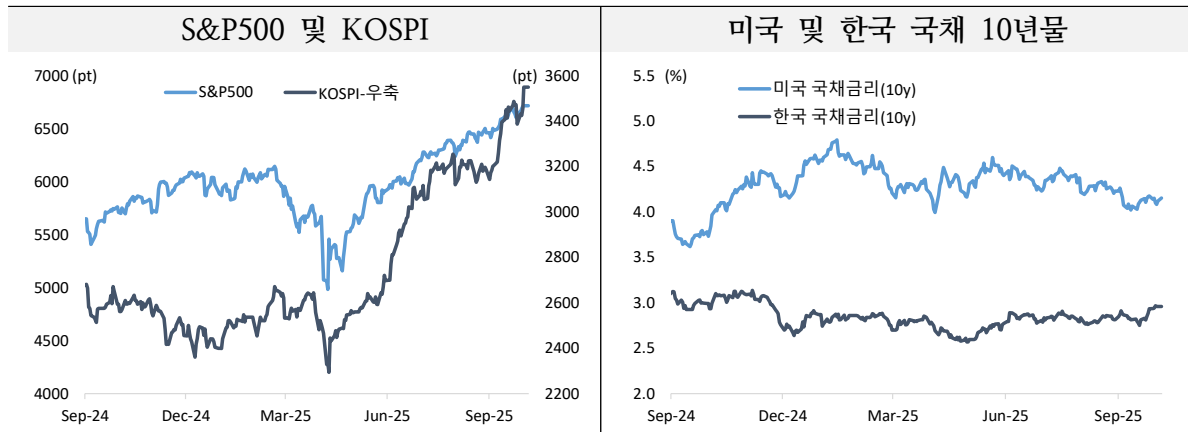
■ IMF, 신흥국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에 따른 대외충격 대응력 강화 평가

- 최근 신흥국들은 통화정책 신뢰도, 중앙은행 독립성, 재정정책 투명성 등 정책 프레임워크의 개선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양호한 회복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 이러한 개선은 자국통화 표시 채권시장 발달로 이어지면서 통화 불일치 문제 및 급격한 자금유출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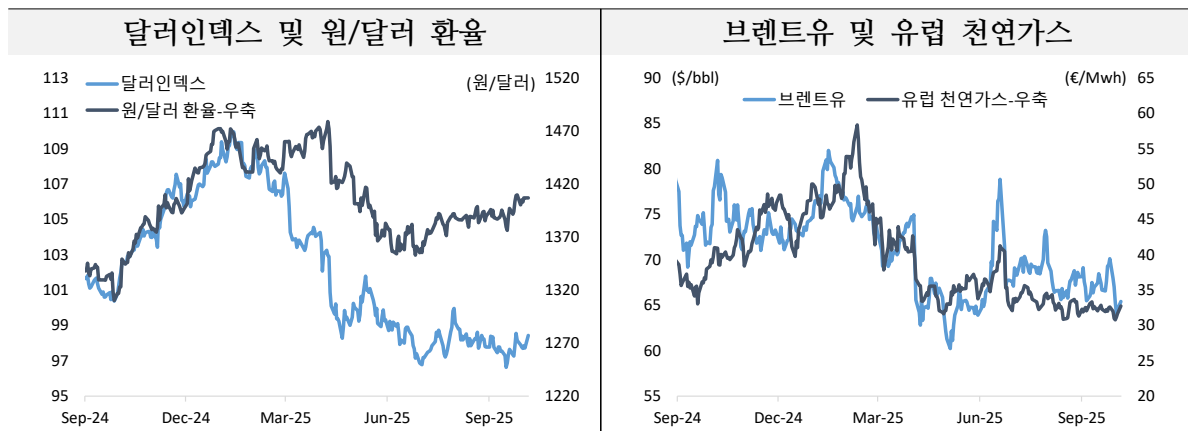
주요 경제·금융 이벤트

- 미국 8월 무역수지(-\$610억, 이하 블룸버그 서베이), 중국 9월 외환보유액(\$3.33조), 일본 8월 가계소비(+1.2%_{yoy}), 독일 8월 공장주문(+1.2%_{mom}) 등 경제지표 발표
- 연준 미란 이사, 보우만 이사, 보스틱 총재(애틀랜타), 카시카리 총재(미니애폴리스), ECB 라가르드 총재, 나겔 정책위원(독일 분데스뱅크) 등의 연설이 예정(10.7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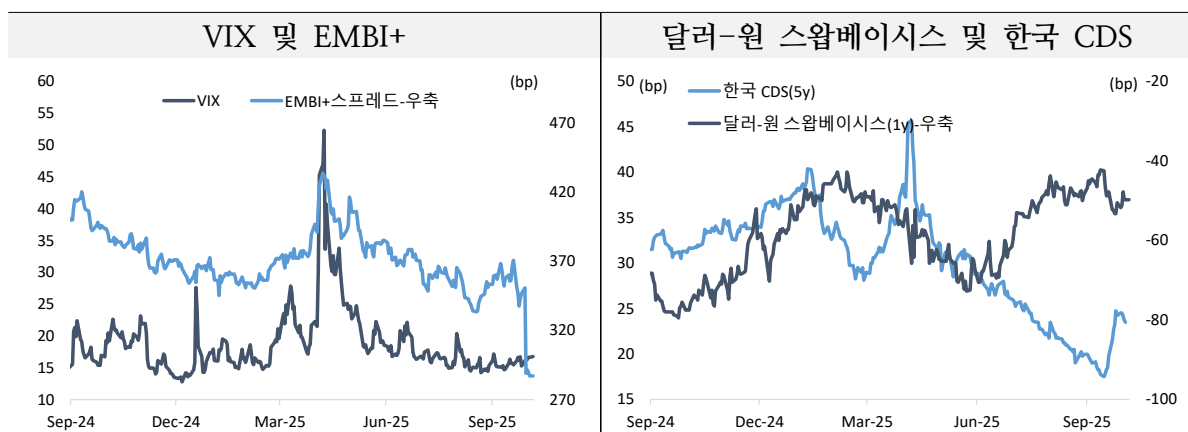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1, E-mail swlee@kcif.or.kr